

연구논문

제주지역 고령의 선주민이 정착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 연구*

한지은** · 김석호*** · 공선희**** · 박효민*****

노동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이주의 유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 동기에 기반한 도시로의 이동보다 자연 속에서 시간적 여유를 누리고자 헤테로토피아를 찾는 이동이 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이러한 신유형의 이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제주 정착이주민의 적응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매해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착이주민이 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착이주민의 관점에서 이주를 다뤘다면, 본 연구는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읍·면부로 이주하는 양상을 염두에 두어 고령화된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고령의 선주민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들 고령의 선주민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자 관련 특성, 제주 관련 특성, 코로나19(COVID-19) 영향, 접촉경험. 전반적인 인간관계와 독거여부, 영양 상태가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출생인 선주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주민의 유입에 부정적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수록 이주민의 유입을 꺼렸다. 마지막으로 정착이주민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착이주민의 유입을 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착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태도를 살펴보고, 고령의 선주민과 신유형의 정착이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며 한 지역사회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제주, 이주민, 고령, 태도, 접촉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3080949).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hanjieun@outlook.com), 제1저자.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seokhokim@snu.ac.kr), 제2저자.

****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전문연구위원)(kmj@jri.re.kr), 제3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hyominp@gmail.com), 교신저자.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파이어(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 F.I.R.E.)가 유행이다. 은퇴 이후의 보장된 삶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지만, 이러한 움직임 아래에는 노동과 삶에 대한 가치가 변화된 시대상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노동과 인간다움은 함께 하지 않으며, 나아가 삶의 근본적 가치를 소비에 두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 변화는 이주 유형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도 근대사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던 경제적 동기에 따른 도시로의 이동은 저물고,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제주도로의 유입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통계청 2020), 제주시,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도 고르게 이주하는 양상을 띤다(김민영·최현 2015;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전에 없던 순유입인구의 증가로 제주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사회 내 갈등이 대두되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정착주민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지원센터 및 주민협의회 구성 등 이주민 정착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또 빠르게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은 토지·주택가격의 폭등, 버는 사람만 벌게 되는 재분배의 문제, 개발로 인한 거주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고, 이는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졌다(김성훈 2018). 그 결과 2017년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기존의 이주민 지원 대신 공동체의 상생·협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염미경 2019).

최근 제주의 순유입인구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강재병 2020), 2020년에는 소폭이지만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낙관할 일은 아니다. 제주지역 역시 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느는 데 비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서 인구부양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제주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지역의 고령 부양비와 고령화 지수 모두 최근 몇 년간 매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이러한 사회 고령화 현상이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면서 지방 정부들은 앞다투어 인구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가 내 이동을 활용해 생산소비가능인구와 그 자녀들의 유입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구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나 공통된 과제가 되었다.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인구유입정책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며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도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는 자연환경,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환경, 문화적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인식 등 이주민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인구유입 측면의 경쟁력을 가진다(김명진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외부의 막연한 기대 혹은 동경과는 별개로 정착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언어관습 등의 지역문화(33.6%),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23.4%), 소득 및 생활물가(15%), 주택마련 및 거주환경(11.6%) 등의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2019년 조사에서는 특히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10% ↑)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4% ↑)을 호소하는 응답이 월등히 높아졌다. 언어 및 관습 등 지역문화의 차이가 사실상 선주민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선행요인이라 본다면, 결국 제주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려움은 선주민과의 관계 문제로 볼 수 있다.

제주 정착이주민들의 선주민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제주 정착이주민들과의 심층 면접에서는 제주출생의 선주민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태도 및 구별짓기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김주호·손주영·이은정 2020; 유철인 1986; 이화진 2016). 또한, 제주 정착이주민이 수월하게 정착하는 데 있어 선주민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염미경 2019; 이화진 2016; 제주특별자치도 2019). 이는 제주를 비롯한 농어촌으로의 귀촌 적응 과정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해석된다(오수호 2012).

결과적으로, 이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은 선주민들과의 관계와 그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크게 의존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선주민들이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선주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이주민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특히 제주지역은 도시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으로 고르게 이주민이 유입되는데,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젊은 층의 감소추세와 제주 읍·면부의 고령화¹⁾가 맞물려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선주민은 주로 고령층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고령의 선주민들에게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태도의 기저에는 무엇이 배태되어 있는가 하는 점은 인구유입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고령층이 제주 정착이주민의 유입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향변인에는 태도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령자 관련 변수, 사회심리학적 변수,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고령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조례 재개정 이후 지역사회통합 측면에서 ‘더불어 행복한 제주 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실행된 1차 정착이주민 지원 기본계획(2018-2021)이 2021년 종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례의 방향과 실천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2022년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관계에 따른 이주민의 정착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I. 본문

1. 이방인으로서의 제주 정착이주민

익숙한 거주지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는 일에는 기존의 정착지를 떠나야 하는 혹은 새로운 어떤 곳에 가야만 하는 목적과 더불어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새 정착지에서의 삶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주민과 선주민 간 문화적 융화, 문화변용, 심리적 장벽, 인적 교류의 저해 요인 등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많은 학자의 연구주제가 되었다.

이주민 연구는 짐멜과 슈츠의 이방인(stranger)에 관한 연구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본다(김광기 2004; 김석호 외 2013). 짐멜은 이방인이란 완전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되려고 시도하는 집단에 속하지 않고, 어떤 이질적 요소를 그 집단에 가미하는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낯센으로 인해 ‘내부의 적’으로 탄

1)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인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내 43개 읍·면·동 중 16개 읍·면·동이 이미 UN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특히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목격되었다.

압박기도 하는 존재로 보았다(권오용 2020; 짐멜 2006). 특히 유럽 중세시대의 유대인을 그 예로 들며, 폐쇄적인 농경사회에서 유일하게 이동성을 가지는 동시에 인두세를 내야 했던 상인으로서의 특징이 바로 이방인에 가까운 모습이라 지목했다.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짐멜의 정의는 제주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지만 제주에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낯선 무언가를 가진 이질적 존재들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잘 설명한다. 김동현(2017)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정착주민 즉 이주민을 제주지역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는 행위 자체가, 제주문화의 고유성과 타 문화간의 이질성을 전제로 이주민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착지의 문화와 달라 이주민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어느 이주 형태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기는 하나, 국내 자국민의 이주입에도 불구하고 적응의 문제가 제주지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주민에게는 낯선 제주 고유의 문화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이주민 실태조사를 통한 공통적인 이주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거주기간이 충분히 길더라도 ‘육지 것’이라 불리는 지속적인 구별 짓기와 마을 공동체에 편입되고자 할 때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선주민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화진 2016). 또한, 2020년 사회지표조사에서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라고 응답한 이주민은 응답자의 51% 정도로 나타나 작년보다 낮아졌다(제주특별자치도 2020).

2. 고령의 제주 선주민이 바라보는 정착이주민

그렇다면 구별 짓기의 주체로 지목된 선주민이 제주 정착이주민에 대해 실제로 배타적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주민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주로의 이주 특성, 선주민의 특성,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의 제주로의 이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으로의 이주 동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귀농·귀촌 인구 중 실제 농업을 생업으로 할 것을 계획하고 이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오히려 탈도시,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민수·박병덕 2012; 마상열

2012). 특히 기존 연구에서 경제 외적인 다양한 동기로 제주에 이주한 사람들을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융합시켜 ‘자발적 유배자(임재영 2017)’, 혹은 ‘적극적 망명자(김명진 2018)’로 인식할 만큼, 최근 제주지역에는 기존의 산업사회의 이주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신유형의 이주가 늘어났다.

선주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주민은 이주민을 ‘마을 사무소에서 하는 방송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 ‘지역주민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 ‘지역 내 교감 없이 장사만 한다고 느껴짐’ 등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한다(이화진 2016). 탈도시 및 자연 속에서의 자유를 목적으로 제주로 이주하는 개인에게 제주는 힐링의 섬이지만, 정작 오랜 기간 제주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선주민에게 제주는 힐링의 장소가 아님이 명확하다(김명진 2018). 선주민들에게 제주는 힐링과 치유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 가꿔온 주거지이자 생계의 터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온 나름의 질서와 규범이 구성된 생활공간이다. 힘이 닿는 한 본인 스스로와 가족을 책임지려는 삶의 방식을 지닌 제주의 여성 고령자의 눈에 육지에서 온 전업주부는 놀고먹는 ‘육지 것들’이라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인다는 구술(김주호 외 2020)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기존 경제구조와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민은 선주민들에게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선주민들과는 다른 가치관, 생활양식, 생업을 가진 주민이 제주의 지역사회로 유입되자,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리적으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생활영역 측면에서는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분리는 단순히 공간의 분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사회경제적 갈등, 문화적 갈등, 기타 제반시설과 관련한 갈등을 야기하였다(염미경 2019). World Economic Forum(2017)이 이와 같은 클러스터를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에리히 프롬이 이야기한, 자신이 지향하는 대상(삶, 타인, 이상)이 공격을 받을 때 발생하는 아주 근원적인 반응적 증오가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다(Fromm 1939).

둘째, 이주민의 특성과 더불어 이주민과 많은 관계를 맺는 선주민의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주민이 가진 특성에 초점을 두고 선주민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로의 이주가 탈도시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제주 전 지역에 고르게 이주민이 유입되는 양상이 목격된다. 이때 지역사회에

서 물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만나게 되는 선주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보아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 도시와는 다른 주거환경과 공동체의 연결망은 도시에서 이주한 개인 혹은 가족에게 매우 이질적이고 낯선 구조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선주민인 고령자의 눈에도 정착이주민이 그러할 것이다. 같은 생애주기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연령층이 같은 범위 내에서 주로 활동하며 관계를 맺는 경향이 강하며, 고령이 될수록 젊은 성인과의 접촉 기회가 낮아진다(주경희 외 2017).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의 2005년 조사발표에서도 개인 특성 중 연령이 높을수록 소수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Coenders et al. 2005).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배타적일 것이다.

연령 이외에도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요인들은 지금까지 다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전문직이거나 중간관리자 이상일수록, 고용상태가 안정적일수록 타인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자형·김경근 2012; Coenders et al. 2005). 여기서 언급된 설명변수들은 사실상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인의 삶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공통된 전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고령의 제주 선주민에게 적용한다면, 고령일수록 배타적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노년기 삶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이주민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차원에서는 종교모임 및 문화단체와 같은 사회참여(전대성·이주실 2015) 역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을 예측하는 다른 영역의 주요 변수들이 이주민에 대한 고령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 노년기를 설명하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권명진 2021), 심리적 건강상태(문준호 외 2021; 차은진·김경호 2015), 사회경제적 지위, 관계맺음(박경희·김상미 2020; 박영란·박정순 2013), 물리적 환경(이예원 외 2018; 전명진·문성원 2016)이 고령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역사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을 다루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제주주는 한반도 가장 남단에 자리잡은 섬이다. 지리적으로 주변부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중요도에 있어서도 주변부로 분류된다. 전국 사회조사들에 있어서 제주가 가지는 비중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사실상 제주는

12세기까지 탐라라는 독립국으로 존재해 왔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자치 통치 체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려의 속국 지위에 놓여 있었고, 조선 초부터 지금의 우리가 인식하는 지방으로 편입되어 중앙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유배자들이 보내지는 곳이었으며, 200년간 육지로의 이동이 금지되기도 했다(박찬식 외 2011). 이후에는 이재수의 난과 4.3사건을 겪었다. 통상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고립 및 핍박은 집단을 구별하는 의식을 높아지게 한다. 박찬식(박찬식 외 2011) 역시 이들 사건들을 통해 제주섬 밖에서부터 유입된 외지인과 외래문화 등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근거한 ‘억눌림의 정서’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제주출생의 개인들은 특정한 집단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집단정체성이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Vedlitz & Zahran 2007), 제주출생의 선주민은 집단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과 비교하여 정착이주민에 대해 더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 추측한다.

3. 코로나 19의 영향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상이라 여겼던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역시 다방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해외여행을 대신하여 전국의 많은 방문객이 찾는 제주지역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외부인의 유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20년 3월 코로나 19 감염자인 서울 거주 모녀가 제주를 방문한 뒤 제주도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0년 12월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제주 입도객의 진단검사 의무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지자체의 강력한 대응과 맞물려, 고선영(2021)의 코로나 19 전후 제주도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변화 연구에서는 제주도민들 역시 현 팬데믹 상황에서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관광객과 정착이주민은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집단이다. 그러나 정착이주민의 상당수가 농어촌에 정착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카페를 개업하고 이 장소들이 관광명소가 되면서 제주 전역에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박미라 2020). 그로 인해 정착이주민과 관광객은 제주 선주민의 인식에서는 무관하지 않은 집단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와 관계가 있는 관광객,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정착이주민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면, 코로나 19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수록 정착이주민들의 유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4. 접촉 경험에 따른 태도 변화

편견적 태도에는 중요시하는 가치나 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과 자신에 대한 위협적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담겨 있다(김혜숙 2007).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 혹은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성원 간의 타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은 1900년대 초부터 북미 전역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는 미국 사회 내의 인종 간 갈등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특히 1943년 디트로이트 인종 폭동이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1950년대 들어서 뉴욕 시의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Allport(1954)는 자신의 저서 *The Nature of Prejudice*에서 편견과 관련해 접촉이론을 소개하였다.

Allport의 접촉이론은 두 집단 간 접촉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고 보는데, 특히 다음의 상황적 조건들이 갖추어 졌을 때 더욱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첫째, 두 집단이 동일한 지위일 것, 둘째, 공동의 목표를 가질 것, 셋째, 집단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 넷째, 법·관습의 지지가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 두 집단 간 접촉이 있을 때 편견이 줄어들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들에 가지 조건은 편견을 줄이는 접촉을 만들어내는 최적의 환경을 제시한 것이며, 필수조건은 아니다. 이후 50년 넘게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접촉이론을 지속적으로 실험한 결과, 위의 네 조건이 부합되었을 경우, 혹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촉은 서로에 대한 편견에 있어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를 유발하며,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ettigrew et al. 2011).

그러나 집단 간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애초에 특정 집단으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접촉을 원치 않는 경우, 더 나아가 두 집단이 경쟁적 상황에 놓여있으면 반복되는 접촉은 오히려 편견적 태도를 강화한다. 특히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과거 오랜 기간 불화·분쟁이 있었던 집단 간 접촉은 긍정적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사회통합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촉이론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느냐는 중요한 논쟁거리임이 틀림없다.

특히 접촉에 있어서도 접촉의 질과 양에 대한 논의는 일관되게 접촉의 질이 중요

함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는 접촉의 대상에 있어서 이민자, 난민, 노인, 그 외 다양한 소수집단을 아우르며, 응답자의 국적 및 민족 정체성은 북미 및 유럽, 아시아 대륙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송유진 2013; De Coninck et al. 2020; Di Bernardo et al. 2021; Johnston & Glasfold 2018; Pettigrew & Tropp 2006; Schwartz & Simmons 2001). 관련 연구들은 접촉의 질과 양을 비교하여 태도 변화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고, 접촉의 빈도는 대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반해 응답자 스스로가 자기 평가에 근거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접촉 경험은 상대가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반화된 우호적 감정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선주민들이 정착이주민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어떠한 접촉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접촉 경험에 따라 이주민 전반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고령의 선주민이 가진 배타성이 오랜 기간 피해의식으로부터 발생한 강한 감정적 태도라면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고령의 선주민이 일반적으로 외지인에게 배타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개인 수준의 접촉과 그에 따른 긍정적 경험이 이주민 전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자료특성, 분석방법 및 결과

1. 자료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통계분석에는 2020년 「제주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분석」 연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본 수는 1,313명(고령층 1,001명, 예비고령층 312명)으로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단순비례배분 방식을 사용하여 배분한 뒤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을 통해 선정하였고, 조사대상을 상대로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대일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중 주변의 정착이주민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한 688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의 경우, 제주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부,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부가 가지는 특성이 각기 뚜렷하게 나타나, 이를 토대로 기존 자료(도시, 산간, 해안)에서 다음의 4개 문항으로 변형하여 포함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N)	백분율(%)
성별	남성	319	46.4
	여성	369	53.6
연령	57~64세	173	25.1
	65~69세	154	22.4
	70~74세	125	18.2
	75~79세	102	14.8
	80세 이상	134	19.5
1인 가구 여부	1인 가구	150	21.8
	2인 이상 가구	538	78.2
교육수준	국민(초등학교) 이하	307	44.6
	중학교	121	17.6
	고등학교	193	28.1
	전문대학(2년제)	18	2.6
	대학교(4년제)	39	5.7
	대학원	10	1.5
거주지역	제주시 동부	602	45.8
	제주시 읍·면부	280	21.3
	서귀포시 동부	213	16.2
	서귀포시 읍·면부	218	16.6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434	33.1
	100~199만 원	330	25.1
	200~299만 원	245	18.7
	300~399만 원	141	10.7
	400만원 이상	163	12.4
출생지	제주 출생	563	81.8
	외지 출생	125	18.2

2. 분석문항 및 방법

조사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제주 선주민이 외지인에 대해 가지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종속변수에는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냐를 묻는 5점 척도 문항이 사용되었다. 1점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2점 ‘약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3점 ‘이대로였으면 좋겠다’, 4점 ‘약간 늘어났으면 좋겠다’, 5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로 측정하였다. 단,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 검토에 따라 총 4 단계로 나누어 투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고령자 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가구 수를 묻는 문항을 변환하여 독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기준범주는 2인 가구 이상이다. 노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만족감을 묻는 5가지 문항을 합하여 평균점수로 투입하였다. 다섯 가지 문항은 ‘인생의 여건이 좋은 편이다’, ‘삶에 만족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내 인생은 내 이상에 가깝다’로 구성되었다. 우울감은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Cronbach's $\alpha=.764$)를 활용하여 누적점수를 합산하여 투입하였다. 타인과의 전반적 관계는 1~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영양 상태는 서울시 고령자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영양 상태 척도를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 상태 나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역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 거주지에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집단정체성을 측정한 제주 특성 변수들로 제주출생 여부와 4.3 희생자 여부를 투입하였다. 제주출생 여부의 기준범주는 외지출생이며, 4.3 희생자 여부 역시 희생자 없음이 기준범주로 투입되었다.

세 번째, 2020년에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인한 삶의 변화 정도를 포함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의 상황이 나빠진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접촉이론의 효과성을 파악기 위해 타지에서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과

의 관계 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타지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1점 ‘관계가 매우 좋지 않다’에서 5점 관계가 ‘매우 좋다’로 분류하였다.

위의 문항들을 활용해 제주 고령층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 후,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선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영역화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각 영역이 태도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본 분석 이전에 <표 1>에서 제시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더불어 자료의 특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다음의 정보들도 우선 제공하고자 한다. 연령범주별 정착이주민과의 관계에는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출생의 고령자와 타지역출생의 고령자 간에는 정착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제주출생=3.13/ sd =.681, 타지역출생=3.43/ sd =.722, t =4.417, df =686, p >0.1).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출생의 고령자가 타지역출생의 고령자에 비해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제주출생=3.92/ sd =.692, 타지역출생=3.75/ sd =.659, t =-2.540, df =686, p >0.5). 그 외에도 코로나 19의 부정적 여파는 70세 이상의 현재 고령층보다는 57세~64세인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더 크게 와닿은 것으로 나타났다(57~64세=3.93/ sd =.72, 65~69세=3.81/ sd =.721, 70~74세=3.67/ sd =.669, 75~79세=3.62/ sd =.63, 80세 이상=3.66/ sd =.673, F =5.213, p >0.5). 또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고령자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코로나 발생 이후 일상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였다(도시거주=3.93/ sd =.735, 읍·면·동거주=3.60/ sd =.624, t =6.377, df =686, p >0.001).

고령의 선주민들이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향후 증감에 대한 의견 문항의 평균은 2.94였고, 표준편차는 .941이었다.²⁾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4단계로 실시되었는데,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고령자 연구에서 포함하는

2) 정착이주민과의 관계가 없어 본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1,313명의 태도 평균은 2.89(sd =.889)이다.

기초 변수들이 투입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비교할 때 읍·면부(제주, 서귀포를 포함)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주민의 유입에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미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시보다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이주민은 단조로운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반가운 존재로 느껴지는 듯하다. 또한,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고령자보다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외지인의 유입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1인 가구의 고령자에게는 대화 및 관계의 확장을 이루어낼 수 기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좋은 고령자일수록 외지인의 유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평가하였다.³⁾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개인의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직접적인 접촉지점이 없는 제3자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반면, 고령자 본인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할수록 외지인에 대한 유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역시 고령자 연구 전반 및 제주의 사회통합 연구에 시사점을 던진다. 영양 상태는 고령자 관련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김춘길 1999; 김혜련 외 2007), 그만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균형적인 영양 상태는 필수적이며, 타인과의 관계⁴⁾뿐 아니라 외지인에 대한 추상적 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거주하는 곳에 만족할수록, 이주민 유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으로 보아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현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은,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모형 2에서는 제주출생 여부와 4.3 희생자 여부가 포함되었다. 모형 1에서 유의미했던 변수들에 큰 차이는 없었고, 다만, 여성에 비해 남성이 외지인에 상대적으로 더 유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김주호 외(2020)의 연구결과는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구를 홀로 책임져 왔던 제주출생의 고령 여성들에게 타지인들의 생활양식은 ‘놀고 먹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편견적 태도가 고령의 남성과 여성이 외지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차이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박대식(2016)의 귀농·귀촌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남성의 노동력이 절대적인 전형적

3) 전반적인 인간관계와 이주민과의 관계 간 상관은 $r=.208$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4) 영양 상태와 전반적인 인간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영양 상태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인간관계 역시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함.

농촌사회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외지인에게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이라면,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해온 여성이 이주민에게 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 새로 투입된 출생지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출생과 비교하여 볼 때 제주출생의 고령자가 외지인의 유입을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제주출생이고 본인이 제주출생이거나, 모(母)보다는 부(父)의 제주출생이 우선시되는 등 출생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존재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출생 여부를 변수로 투입하였고, 이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제주출생의 고령자가 이주민 유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코로나 19로 인해 고령자의 삶에 나타난 변화가 기존모형에 투입되었다. 코로나 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일상을 비교할 때 코로나 19로 고령자 개인의 삶이 나빠졌다고 인식할수록 이주민 유입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제주의 지역사회 곳곳에 외식업체와 숙박업체를 비롯한 관광명소들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제주의 단기 여행객 증가로 이어진다. 여행객 증가는 지역경제 및 환경개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 19 이후로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제주 방문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지난해 12월 제주에 오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한 바가 있을 정도로 외지인의 유입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외지인의 유입이 내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설문 조사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고령의 선주민들이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과 방문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인 고령의 제주 선주민에게는 여행객과 정착이주민이 전염병을 유발하는 외지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4에는 접촉이론에 근거하여 정착이주민과의 직접적인 경험에 따른 태도를 살펴보았다. 정착이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응답은 10% 가량이었고,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5%,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고령의 선주민들은 정착이주민들과의 개인적 경험이 좋았을수록 정착이주민의 유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모형 4에서 접촉 변수가 투입되면서 코로나 19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제주출생의 선주민이 기본적으로 정착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 사실이지만, 이들과의 개인적 경험이 긍정적이었음수록 이주민 유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기존 코로나 19로 인한 부정적 태도는 직접 경험 변수가 투입되면서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관계의 영향도 사라졌는데, 이는 두 변수 간의 유의미한 상관으로 인하여 접촉 경험 변수가 투입되면서 전반적 관계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접촉이론과 특히 접촉을 통한 긍정적 경험과의 관계가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의 일반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

<표 2> 제주 고령 선주민이 정착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t(sig)	B	t(sig)	B	t(sig)	B	t(sig)
(상수)	2.595	7.050***	2.880	8.037**	3.408	.907***	1.395	.361***
연령	-0.007	-0.171	0.008	0.203	0.005	0.124	0.003	0.098
성별	0.145	1.666	0.145	1.719*	0.144	1.716 ⁺	0.157	2.120*
월소득	-0.012	-0.445	0.001	0.020	0.005	0.180	-0.005	-0.226
지역	0.171	2.053*	0.232	2.859*	0.195	2.367*	0.204	2.810**
독거 여부	0.276	2.521*	0.206	1.923 ⁺	0.206	1.935 ⁺	0.210	2.235*
삶만족도	-0.029	-0.486	-0.019	-0.325	-0.023	-0.406	-0.051	-1.006
우울감	-0.003	-0.094	0.002	0.091	0.004	0.139	-0.018	-0.763
전반적 관계	0.148	2.109*	0.179	2.631**	0.179	2.645**	0.061	1.009
영양 상태	-0.075	-2.238*	-0.055	-1.691	-0.054	-1.681	-0.022	-0.789
거주지 만족	-0.051	-0.931	-0.048	-0.914	-0.052	-0.995	-0.041	-0.887
제주 출생			-0.704	-6.276***	-0.707	-6.326***	-0.480	-4.79***
4.3			0.026	0.264	0.020	0.208	0.100	1.152
COVID-19					-0.130	-2.187*	-0.050	-0.955
경험							0.639	12.063***
<i>F</i> (sig)	2.145*		5.266***		5.266***		16.694***	
Adj. <i>R</i> ²	.022		.091		.097		.299	
<i>N</i>	688		688		688		688	

* $p < 0.05$, ** $p < 0.01$, *** $p < 0.001$, (+ $p < 0.09$).

IV. 결론 및 함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의 제주 선주민들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2인 이상 가구보다는 1인 가구가,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영양 상태가 좋을수록 정착이주민의 유입을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

둘째, 제주출생의 선주민은 타지출생의 선주민과 비교하여 정착이주민의 유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내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평가할수록 정착이주민의 유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착이주민과의 개인적 관계 맺음에 있어서 긍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착이주민의 유입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제주의 고령 선주민 및 선주민과 정착이주민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몇몇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제주 정착이주민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주민의 관점에서 선주민의 배타성을 지적해 왔다면, 본 연구는 고령의 선주민이 정착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자료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제주출생의 선주민들이 타지출생의 선주민들과 비교할 때 정착이주민에게 더욱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태도 연구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고령자의 특성을 확인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고령자 연구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 건강한 삶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독거 여부, 성별, 지역 이외에도 전반적인 인간관계, 영양 상태와 같은 고령자 특성의 변수들 역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영양 상태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라는 개별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조건이자 사회와의 관계적 측면에서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통합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의 선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이해하고 갈등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고령의 선주민 개인의 건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마지막 함의로는, 접촉이 가져오는 태도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Allport의 접촉이론은 최적의 조건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조건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접촉이 가져오는 긍정적 태도 변화를 주장한다. 제주가 아닌 외부의 것, ‘육지 것’에 대한 제주출생 집단 내에 무의식적인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정착이주민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얻은 긍정적 경험 및 관계가 이주민 전반에 대한 환영으로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선주민과 정착이주민 간 갈등은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귀농·귀촌이 있는 어느 지역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다. 그러나 갈등의 구체적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은 각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 행정체계를 비롯한 인프라, 선주민과 이주민의 적극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정착이주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정착이주민이 지역사회, 특히 읍·면부로 이주할수록 만나게 되는 선주민이 대부분 고령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고령층에게 있어서 익숙한 생활세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오히려 고령의 선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을 때 외부인에 대해 더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 지원 정책과 이주민 지원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둘째, 제주 정착이주민은 기존에 확인된 귀농·귀촌과는 결이 다른 이주 동기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뿐 아니라 이주민이 정착하게 될 지역사회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셋째, 특히 제주지역은 정착을 희망하는 이주민이 고령의 선주민에게 내재된 암묵적인 배타적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할수록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외지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넘어서서 제주의 역사로 인해 형성된 집단 내 암묵적 배타성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은 단순히 접촉의 빈도를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오히려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 경험과 관계가 누적되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이론이 제시하는 최적의 조건들이 마련된 장이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경쟁하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둘 간의 접촉은 선주민이 외지인을 더욱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매중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병. 2020. “사람 몰리던 제주, 인구 감소 현실화.” 《제주일보》 2020년 6월 3일자.
- 권명진. 2019.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노인 우울의 영향 요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485-495.
- 권오용. 2020. “증오의 생산, 대상, 정당화-프롬, 짐멜, 아도르노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58: 409-450.
- 김광기. 2004.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38(6): 1-29.
- 김동현. 2017. “2000년대 이후 문화이주 연구를 위한 새로운 관점-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108-118.
- 김명진. 2018. “제주이주 서사에 나타난 헤테로토피아적 상상.” 《인문컨텐츠》 48: 138-161.
- 김민영·최현. 2015. “제주도 이주의 현황과 전망.” 《탐라문화》 50: 40-79.
- 김석호·신인철·하상웅·정기선.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김성훈. 2018. “제주 인구증가 축복일까?.” 「한라일보」 2018년 03월 19일자.
- 김정은. 2020. “도내 무주택 가구 전체 45%...道, ‘주거복지정책 발굴.’” 《제주일보》 2020년 8월 6일자.
- 김주호·손주영·이은정. 2020. “제주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문화융합척도개발의 기초연구.” 《관광연구》 35(4): 123-142.
- 김춘길. 2007. “재가노인의 가족지지, 건강지각, 영양 상태와 우울과의 관계.” 《노인간호

- 학회지》 9(1): 14-21.
- 김혜련·곽노성·문현경·백희영·강장미·이정원. 2007.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 사회 및 성격》 13(1): 1-3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문준호·송명근·이원석·당약함. 2021. “고령화 패널 자료를 이용한 노인 삶의 질의 결정 요인.” 《공공정책연구》 38(1): 233-254.
- 박경희·김상미. 2020. “제주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2(3): 115-138.
- 박대식. 2016.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7-35.
- 박미라. 2020. “제주 SNS 맛집, 명소 찾는 관광객에 농촌도 ‘북적’쌔쌔이 지도 바뀌어.” 《경향신문》 2020년 1월 1일자.
- 박영란·박경순. 2013.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60: 323-352.
- 송유진. 2013.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3): 1-19.
- 염미경. 2019. “제주 이주와 지역사회 변화 그리고 대응.” 《제주도연구》 51: 181-217.
- 오수호.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한국지역지리학》 18(1): 101-117.
-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문화》 5: 71- 93.
- 이민수·박병덕.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 이예원·박종욱·우성주. 2018. “고령자 주거만족도와 우울감 상관성 분석에 기반한 ‘주거우울’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4(1): 1-6.
- 마상열.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 이화진. 2016.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임재영. 2017. “유배는 감금 아닌 힐링...이왈중-이효리처럼 ‘셀프 유배인’ 늘어.” 「동아일보」. 2017년 7월 24일자.
- 전명진·문성원. 2016. “노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 노인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2): 153-171.
- 주정희·김주현·정순돌·임병우. 2017.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와 연령통합 인식에 대한

- 연구: 청년집단과 노년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3): 71-93.
- 제주특별자치도. 2019. 《2019년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2020. 《2020년 제주의 사회지표 주요결과》.
- 짐멜, 게오르크. 2006.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윤미애 옮김. 새물결.
- 차은진·김경호. 2015.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70: 54-81.
- 통계청. 2020.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국가통계포털.

-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Coenders, M.T.A., M. Lubbers, and P.L.H. Scheepers. 2005. “Majorities’ Attitudes towards Minorities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Results from the Standard Eurobarometer 1997-2000-2003.” [report 2].
- De Coninck, D., Rodríguez-de-Dios, I., and d’Haenens, L. 2020. “The Contact Hypothesis during the European Refugee Crisis: Relating Quality and Quantity of (in) Direct Intergroup Contact to Attitudes towards Refugee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68430220929394.
- Di Bernardo, G.A., L. Vezzali, M.D. Birtel, S. Stathi, B. Ferrari, D. Giovannini, and T.F. Pettigrew. 2021. “The Role of Optimal Conditions and Intergroup Contact in Promoting Positive Intergroup Relations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 Study with Ethnic Majority and Minority Worker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3684302211010929
- Bogardus, E.S. 1933. “A Social Distance Scale.” *Sociology & Social Research* 17: 265-271.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Gilbert, D., S. Fiske, and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57-411. McGraw-Hill.
- Fromm, E. 1939. “Selfishness and Self-love.” *Journal for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cesses* 2.
- Johnston, B.M. and D.E. Glasford. 2018. “Intergroup Contact and Helping: How Quality Contact and Empathy Shape Outgroup Help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8): 1185-1201.
- Pettigrew, T.F. and L.R. Tropp.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doi:10.1037/0022-3514.90.5.75
- Pettigrew, T., L. Tropp, U. Wagner, and O. Christ. 2011. “Recent Advances in Intergroup

Contec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3): 271-280.

World Economic Forum. 2017. “Migration and Its Impact on Cities.” World Economic Forum.

<접수 2021.06.01; 수정 2021.08.04; 게재확정 2021.08.11>

Factors Influencing Elderly Attitudes toward Newcomers in Jeju

Ji-eun Han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Research Center)

Seokh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hee Kong

(Jeju Research Institute)

Hyomin Park

(University of Seoul)

Changes in values for labor and consumption have also changed the type of migration. Rather than moving to cities based on economic motivation, more and more people tend to seek heterotopia to enjoy time in nature. In particular, Jeju became an attractive place for these new types of immigrants; however, the issue of adaptation of Jeju settlers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and more and more settlers are expressing difficulties in adaptation each year. Prior research studies mostly dealt with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mmigrants; this study discussed the attitude toward newcomers from the perspective of indigenous people. Considering the tendency to settle in not only the city but rural areas too, the attitude of elderly people became an issue; therefore the elderly's attitude was measured in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migrants were analyzed in four stages.: Elderly-related characteristics, Jeju-related characteristics, Covid-19 impact, experience of direct contact. Overall relationship satisfaction, living alone, and nutritional status have affected the attitude. The Jeju-born elderly expressed more negative feeling to the influx of migrants. The more negatively affected by Covid-19, the more reluctant the influx of migrants was. The more positive the impression they have through personal contact with new settlers, the more they welcome the influx of newcom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measured the attitude of indigenous people with quantitative data and sought ways to reduce conflicts between Jeju elderly people and new-type of immigrants to live together in a community.

Key words: Jeju, immigrant, elderly, attitude, contact